



한인학생들이 SAT2 모의 시험에서 진지하게 문제를 풀고 있다. 대입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고등학생들의 시험 스트레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중앙포토>

징용피해 승소가능성 크다

LA지법 절차심리서 원고요구 전격수용

캘리포니아에서 한인 일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집단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11일(월) LA지방법원 59법정(브루스 미첼 판사)에서 열린 2차 절차심리에서 재판부가 원고측 요구를 전격적으로 수용, 앞으로 진행될 재판과정에서 원고측의 승소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담당판사인 브루스 미첼 판사는 이날 신혜원, 케네스 한(한국명 태호), 베리 피셔 등 미국내 한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과 피고인 다이헤이요시멘트 회사(구 오노다시멘트회사) 변호인단과 함께 한 절차심리에서 원고가 요구한 증인수집 기간을 받아들였다.

이에따라 원고측이 요구한 일제 징용기간을 원고 정재원씨가 근무하던 기간(44년 1월~45년 8월)에서 일본 정부가 독일과 1차 동맹을 맺은 1936년 11월25일부터 1945년 12월31일까지로 수용됐다.

또한 미첼 판사는 이날 자료제출 명령기간을 2차 절차심리가 열린 지난 11월 28일부터 90일내로 원고측 변호사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최종 확정했다.

피고측 변호인단측은 이에따라 당시 '오노다 시멘트회사'가 소유했던 광산과 공장위치, 당시 매니저급 이상 고급간부들의 명단 및 신상명세자료, 당시 벌어들인 이익 등 모든 자료를 1차 증거자료는 오는 2월 1일까지, 최종

자료 제출은 오는 3월1일까지 마쳐야 한다.

신혜원변호사는 "지금까지는 원고측의 요청이 대부분 채택되고 있어 재판 결과가 희망적이지만 13일(수)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에서 열리는 일본 회사를 상대로 한 한인집단 소송 케이스의 판결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정재원씨 등 한인 징용 피해자들은 작년 10월 4일 거주에서 지난 99년 7월 28일 통과된 거주징용배상 특례법에 의거, 일본정부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며 민사소송에 들어갔었다.

장연화 기자

<cyha@joongangusa.com>